



기후변화 시대, 댐 기술이 열어갈 지속 가능한 미래 : 2027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대전



김병기 연구원장
K-water | 한국대댐회 기획부회장

2024년 10월, 2027년 국제대댐회(ICOLD)연차회의를 유치했다. 2004년 이후 23년 만에 한국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한 거양적인 성과이다. 세계 댐 산업의 최대 축제이자 기술 교류의 장인 이 행사를 대전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단순한 국제회의 개최를 넘어, 대한민국 수자원 기술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대댐회의 기획부회장으로서 한국의 선도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며, 2025년도의 성과 및 향후 준비계획, 연차회의의 의의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1. 한국대댐회의 탄탄한 기반 구축

글로벌 손님들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한국대댐회를 더욱 건실하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이 시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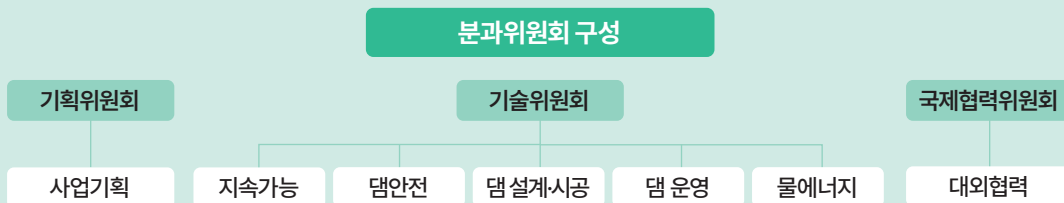
1.1 사무국 강화

행사 준비의 중심이 될 사무국부터 강화했다. 기존에는 K-water의 임금피크직 직원이 사무국장을 맡았지만, 이를 과감하게 현업 팀장급으로 격상했다. 국제대댐회 연차회의에 다년간 적극 참여하며 타국 대댐회와 이미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박동순 국장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사내 공감대 형성을 통해 파견직원 2인과 특수직 1인을 추가 확보하여, 사무국을 기존 2인 체제에서 5인 체제로 확대했다. 이는 2027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1.2 분과위원회 신설

실행력 있는 준비를 위해 기존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각 분과는 분과장, 간사 등 1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K-water뿐만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과장으로 참여했다. 여기에 학계와 기업 전문가까지 전방위적으로 섭외하여, 심포지엄별 주제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1.3 분과위원회 현황 및 역할



1.4 한국대담회 활성화

조직 정비와 함께 대담회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했다. 각종 네트워크를 활용해 회원사를 확대하고, 오프포럼을 통한 정기 미팅으로 회원 간 교류를 활성화했다. 온라인으로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분기별 뉴스레터도 개선하며 신규 회원사와 대담회 주요 활동을 적극 홍보하며 관심도를 높여가고 있다.

1.5 2027년 국제대담회 연차회의 기획- 3개년 로드맵

2년 남짓한 기간 내에 한국의 댐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또 연차회의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한국과 대전의 매력을 함께 선보일 수 있도록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했다.

2024년 유치 성공 직후, 우리는 2027년 행사까지의 3개년 5단계 로드맵을 수립했다. 치밀한 계획 없이는 1,800여 명의 국제 전문가를 맞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각 단계별 목표와 실행 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분기별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착실히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1단계 (2025년 상)	2단계 (2025년 하)	3단계 (2025년 상)	4단계 (2025년 하)	5단계 (2025년 상)
행사 준비 체계 구축	행사 준비 착수	행사 준비 본격화	최종 행사 준비 및 점검	본 행사 성공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 MOU · 메인테마 대국민공모 · '25년 연차회의의 참석 *중국 청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COLD 조직강화 및 위원 재구성 · 테마-심포지엄 소주제 선정 · 캐나다 대담회 컨퍼런스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 인력(3인)-재원 보강 · ICOLD 사무국 실사 · 행사 공식 홈페이지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위원회 출범 · 참가자 등록(전시부스 포함) · 행사 세부 프로그램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업무분장 수립 · 본 행사 성공 개최 · 행사 결과 보고

2. 2025년 청두 연차회의 - 한국의 첫인상을 만든다

2025년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93차 연차회의 및 제28차 기술총회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2027년 대전 행사를 앞두고 ICOLD 회원들에게 한국의 첫인상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2.1 대규모 한국대표단 구성

한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참가자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대표단을 꾸렸다. 환경부, 지자체(대전시, 대전관광공사), 공공기관(K-water, 한국수력원자력, 농어촌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남동발전), 그리고 학계까지 약 50여 명이 참가했다. 이는 청두 연차회의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표단 중 하나였다.



[2025년 청두 연차회의의 한국대표단]

2.2 전략적 홍보

정기총회에서 2027년 한국 행사에 배정된 홍보 시간은 단 10분. 짧은 시간 내에 강력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PPT, 홍보영상, 리플렛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홍보영상은 약 5분 분량으로, 개최지 대전 소개, 한국대담회의 기술력, 그리고 한국으로의 초대 메시지를 담았다. K-water의 디지털트윈, 수열에너지, 태양광 등 글로벌 수준의 수자원 선도기술을 매력적으로 담아냈다.

2.3 뜨거웠던 발표의 순간

ICOLD 총회에는 각국 대담회 대표 및 분과위원장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예·결산, 임원단 선출, 차기 연차회의 검토 등으로 중 일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오후에 한국의 발표 차례가 돌아왔다.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담은 환경부 지지 연설을 시작으로, 박진혁박사의 발표가 이어졌다. 대전의 개최시설과 호텔, 한국의 절경, K-pop, 한식,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댐 기술의 비전이 제시되자 회의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종일 진행되었던 회의에 오후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집중도가 확연히 높아졌다. 발표를 마쳤을 때 멀리서도 "나이스!", "베리굿!"을 외치며 엄지를 치켜세우던 참석자들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다. 이외에도 출장자 마다 본인이 참여하는 APG 회의 및 기술위원회 회의 등에서 각개전투 하듯 발표 시간을 확보하여 2027년 한국 행사를 소개하고 참석을 독려했다.



[KNCOLD 대표 총회 참석]



[2027년 ICOLD 연차회의 홍보부스]



[2027년 국제대담회 연차회의 홍보 (총회, APG 회의 등)]

2.4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식 일정 외에도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일본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K-water는 중국 IWHR(수리수전과학연구원)과 MOU를 체결하며 양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2027년 행사 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일본 전문가들과의 미팅을 통해 기술 가이드라인 공동 작성 등을 협의했으며, 다년간 우호적 관계를 다져 온 미국, 캐나다와도 긴밀히 소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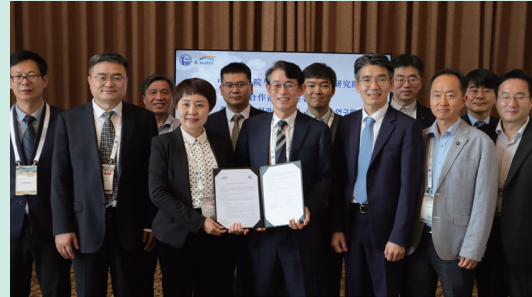
2.5 ICOLD 사무국과의 실무 협의

ICOLD 사무국과 별도 미팅을 갖고 실질적인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2026년 3월로 예정된 사무국의 실사 방문과 관련하여 인

원, 기간, 주요 준비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과거 연차회의의 참석 인원, 등록비 등 행사 설계에 필수적이지만 공개되지 않은 실무 자료를 요청했고, 최근 3개년 개최국의 국내외 참석자 현황, 만찬 단가, ICOLD 수수료 등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2.6 홍보부스의 성공

홍보부스에서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홍보영상 상영과 함께 부채에 한글 이름을 적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500여 명이 부스를 방문하며 2027년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2027년 부스 판매를 위해 적극적으로 세일즈한 결과, 이미 타국 행사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로부터 한국 부스 계약을 구두로 약속받았으며, 일부는 명함을 남기며 계약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타국 대담회, IWHR 등 협력]



[참가자 대상 홍보]



[ICOLD 사무국 면담]

3. 앞으로의 준비과정, 성공개최를 위한 밑거름

3.1 대국민 공모전

우선 행사의 관심도를 높이고 붐업을 일으키고자 국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행사를 대표하는 주제에 대해 공모한 메인테마 공모는 103건이 접수되었다.

최근 댐기술 트렌드 키워드를 반영한 공모안에 대해 심사 및 분과위원회 투표를 거쳐, 최종 두 개 안으로 확정되었다. ('Dam Safety and Resilience in the Era of Climate Change'기후변화 시대의 댐 안전과 회복탄력성/ 'From Climate Change to a Sustainable Future: Advancing Dams'기후변화로부터 지속가능한 미래로 : 더 나은 댐) 최종테마는 국제대담회 사무국과 협의 하에 확정할 예정이다.

대전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국제대담회와 지역홍보를 연계한 '대전, 그리고 물,이라는 주제로 숏폼영상 공모전을 실시했고, 24편의 영상 중 심사를 거쳐 11편의 영상을 시상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27년 연차회의 개최 전까지 친근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메인테마 공모]



[숏폼 공모전]

3.2 행사 준비조직 구성

행사 유치 시부터 협력해온 대전시, 대전관광공사 등과 더불어 개최 전 과정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지·산·학·연·관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준비위원회 및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사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분야에 걸친 체계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3.3 온라인 홈페이지 개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행사개요, 개최지 소개, 심포지엄, 전시 및 투어 접수, 숙박 예약 등이 연계된 종합 페이지로, 영어, 불어, 한국어로 구성된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 참가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3.4 타 대담회와 교류 및 홍보

중국대담회와는 올해 개최 행사에 관한 노하우 공유, 행사 주의사항 등을 소통하고 있고, 일본대담회와는 온라인 미팅 등을 통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대담회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2027년 공동세션 주제를 발굴하고 연차회의의 관련 홍보를 진행했으며, 캐나다대담회와의 면담을 통해 2019년 캐나다에서 진행했던 연차회의를 벤치마킹하며 운영 관련 팁을 공유받았다.

3.5 ICOLD 사무국 실사 및 멕시코 연차회의

2026년 3월에는 ICOLD 사무국의 실사가 예정되어 있다. 개최지 시설, 숙박, 교통, 기술 프로그램 등 세부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또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심포지엄별 주제를 구체화하고 확정하며, 논문 접수 및 국내외 발표자 섭외를 진행할 예정이다. 5월에는 멕시코에서 2026년 연차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행사 개최 전 차년도에 해당되는 만큼 한국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연차회의의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며, 글로벌 참가자를 유치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는 행사 Bulletin 발간 및 메일링을 통해 각국 대담회에 홍보하고, 중국에서 열리는 EADC(동아시아댐기술교류회의) 및 캐나다-미국 대담회의 컨퍼런스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어서 2027년 상반기에는 한국대담회의 전력을 모아 최종 리허설과 현장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4. 연차회의 기대와 의의 - 새로운 미래를 향한 전환점



[2027년 국제대담회 대전 연차회의홍보물]

4.1 대한민국의 파급효과

2027년 국제대담회 연차회의에는 1,800여 명의 세계 댐 기술 전문가가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행사 공간은 DCC 행사장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참가자 맞춤형 부대 프로그램이 함께 기획된다. 수자원 기술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댐 및 연구소 견학,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이 다채롭게 준비된다. 이에 따라 행사 기간 동안 관광, 숙박, 교통, 외식 산업이 활성화되며 국가 전체에서 약 145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예상된다

* 경제유발효과 = 생산유발효과 98.5억원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47.3억원

4.2 대전지역 지방시대 활성화

국내, 특히 대전 수자원 관련 기관과 기업들에게는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전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술 설명회, 전시관, 비즈니스 미팅 등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전의 중소기업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4.3 글로벌 선도 기술 확산

무엇보다 글로벌 선도 댐 기술과 수자원 관리 솔루션을 선보이며, 대한민국이 세계 수자원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대한민국 수자원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기술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될 것이다.

23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 기회를 통해, 우리는 세계에 대한민국 수자원의 저력을 각인시킬 것이다.